

## 지속성 외래복막투석 환자에서 발생한 *Sphingomonas paucimobilis*에 의한 복막염 1예

전주예수병원 내과

이재운 · 김병선 · 박재우 · 장미영 · 김정관 · 이광영

### A Case of Peritonitis Caused by *Sphingomonas Paucimobilis* in a Patient Undergoing 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

Jae Un Lee, Byung Sun Kim, Jae Woo Park, Mi Young Jang, Jeong Gwan Kim, Kwang Yeong Lee

Jesus Hospital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

**서 론:**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은 말기 신장 질환자의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이다. 복막투석 환자에서 복막염은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최근에는 발생빈도는 과거보다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복막염은 여전히 복막투석의 중단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. *Sphingomonas paucimobilis*는 물, 식물, 병원 기구, 약제 및 혈액 소변, 뇌척수액 등의 임상검체에서 분리되며 원외 감염 및 원내감염을 일으키며 외국에서 복막염의 원인균으로 보고된 적이 있다. 이에 저자들은 *Sphingomonas paucimobilis*에 의한 복막염 1예를 경험하였기에 이에 대해 보고하는 바이다.

**증 례:** 63세 남자는 내원 2일전부터 복막투석액이 혼탁해지고 복부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하였다. 과거력상 20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병으로 약물치료 중이었으며, 2005년도부터 만성신부전으로 복막투석치료 시작하였다. 입원 당시 활력 징후는 특이소견 없었고, 말초혈액검사서 혈색소 11.3 g/dL, 백혈구 7,600/mm, 혈소판 201,000/mm 었다. 생화학 검사에서 AST/ALT 14/23 IU/L, BUN/Cr 32/5.2 mg/dL, 빌리루빈 0.6 mg/dL, 알부민 2.9 g/dL, 총단백 5.5 g/dL 이었으며, 전해질은 Na 139 mEq/L, K 3.0 mEq/L, Cl 103 mEq/L이었다. 복막 투석액 세포검사서 백혈구 2,040/mm (다형핵 백혈구 85%) 이었고, 경험적 항생제로 cefazolin 1g 1회/일과 ceftazidime 1g 1회/일로 복강내 투여하였다. 복막투석액에서 ceftazidime에 감수성 있는 *Sphingomonas paucimobilis*가 배양되었고, 입원6일째 복막투석액 세포검사서 백혈구 30/mm (다형핵 백혈구 5%)으로 복막염 호전된 양상이어서 ceftazidime, cefazolin 8일분 추가 처방하여 퇴원하였다. 퇴원 후 8일째 다시 복부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하였고, 복막투석액 세포검사서 백혈구 5,070/mm (PMNL-75%)여서 항생제는 imipenem 1g 2회/일로 변경하였다. 반복 시행한 복막투석액 배양검사서 *Sphingomonas paucimobilis*균주가 동정되었고, imipenem 투여에도 불구하고 복통이 지속되고 복막투석액 세포검사서 백혈구 4,300/mm (다형핵 백혈구 80%)으로 복막염 호전되지 않아 입원 7일째 투석관 제거하고 혈액투석으로 전환하였고, 이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하였다.

**Key Words:** *S. paucimobilis*, 복막염, 복막투석  
*Sphingomonas paucimobilis*, Peritonitis, CAPD